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25일 제2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봉희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18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앞서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신, 임정호, 김영호, 김미란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조규철 의장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며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난 2년간 고창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식품 기업 현장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정읍 단풍미인대학 농산물가공과정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정읍시 농식품 기업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 교육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 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정읍시 농식품 가공업체인 맑은샘자연교육농원과 ㈜두손푸드, 콩사랑 마을기업 3곳을 방문해 가공사업장을 견학하고, 선도 사업장의 운영사례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은 2013년 설립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먹기 편한 채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홈쇼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채소 잡곡과 채소 볼, 채소 차 등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의 중요성과 마케팅 방법 등 운영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별 맞춤형 재생"

'2030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전북도 최종 승인

국가정책 · 도시여건 변화연계 도시재생 방향 재설정

정읍시가 민선 7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여건 변화에 맞게 2030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한다.

향후 도시재생의 방향 재설정을 위해 전략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관련해 지난 18일 시가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이 전북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전략계획은 '다양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재생, 함께 나아가는 정읍'을 비전으로 지역상권과 공동체 회복, 근린재생 실현,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최초 수립된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로 · 터미널역세권 · 초산 활성화지역 3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3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계획안 변경에 따라 앞서 선정된 활성화지역을 세분화하고 신태인역 주변과 태인향교 주변을 포함해 총 14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과 연계한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며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보고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하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마련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녹두장군 휴게소 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호남고속도로 녹두장군 휴게소 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새롭게 단장

정읍시, 울외장아찌 등 판매

정읍시가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마련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녹두장군 휴게소 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시는 홍보판매장의 노후화된 간판과 지붕 등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울외장아찌와 복분자 진액 등 가공식품과 체리와 귀리 등 계절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한다.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된 특산물을 엄선해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과 편의점 등 관광객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서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정읍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정읍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은 "정읍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내 판매장에 오면 다양한 농특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장애아동 가족 돌봄 부담 줄인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추가 지정… 경쟁체제 구축

부안군은 장애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정도를 완화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부안아동발달지원센터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 ·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언어재활, 청능재활, 감각재활 등의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안군에서는 기존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에서만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부안군은 지난 5월 공고를 통하여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로 1개소를 지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정된 부안아동발달지원센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다.

김미옥 부안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체제 구축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무거운 짐을 덜고,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70주년 6.25행사 개최

고창군이 제70주년 6.25를 맞아 고창군 목화부페 3층에서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25일 오전 군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고창군이 제70주년 6.25를 맞아 고창군 목화부페 3층에서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25일 오전 군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등 6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한 9명의 군수표창, 6.25참전유공자 30명에게 정부차원의 관심과 감사 표명 및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감사메달 전수, 70주년 기념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국가와 민족, 지역을 위해 희생했던 6.25참전용사들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고창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과 보훈가족 여러분들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현안해결 · 고향발전 상호 협력 약속

재경정읍시민회 상생발전 간담회

재경정읍시민회(회장 김호석)는 지난 24일 유진섭 시장과 정읍에 연고를 둔 제21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시와 출향인, 정읍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정읍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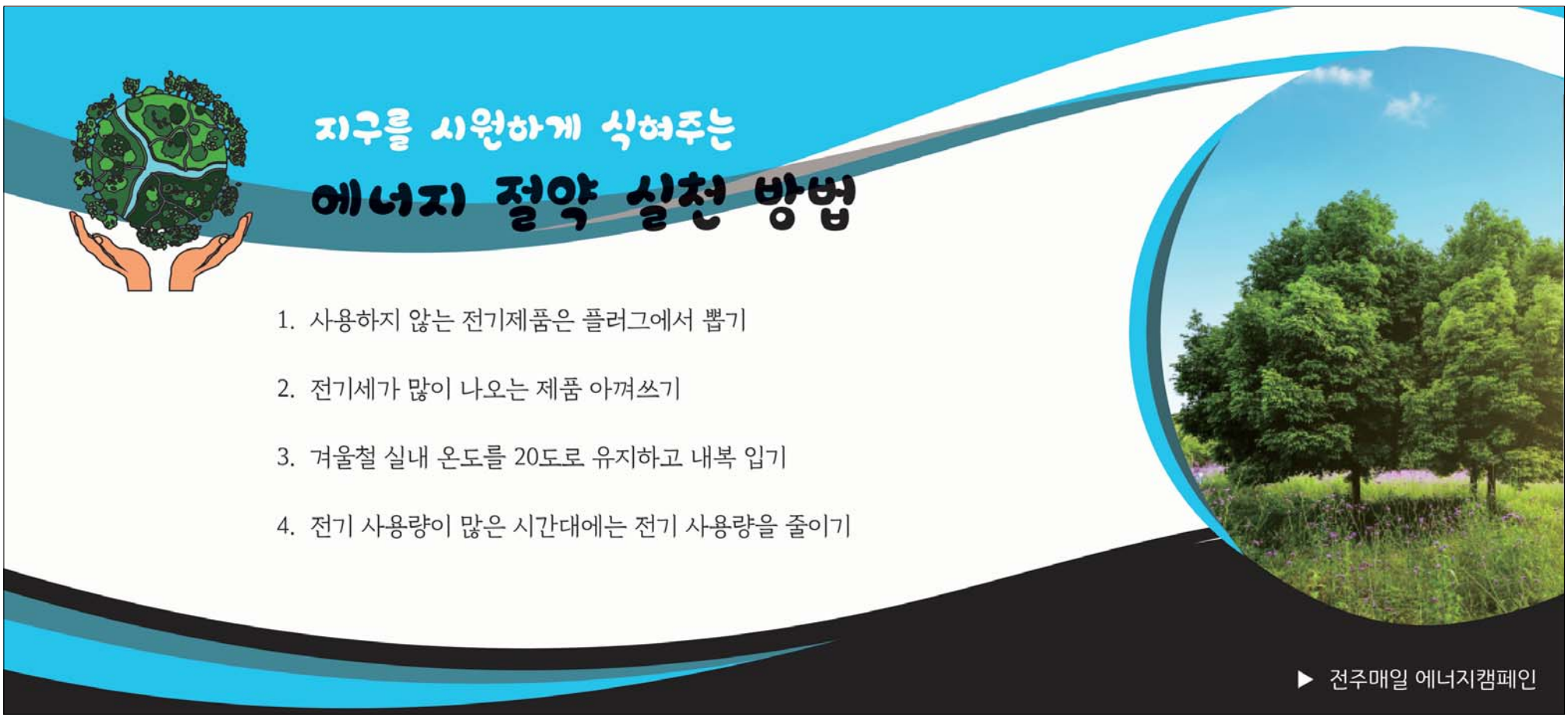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정읍시민회 회장단을 비롯해 유진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 · 고창), 전혜숙(서울시 광진구갑), 김한정(경기도 남양주을), 임오경(경기도 광명시갑) 국회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가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출향인사들과 정읍 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주요 현안과 사업을 공유하고,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 정읍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읍시와 국회의원, 출향인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고향 사랑으로 시정 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